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강석정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ity, Self 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Seok-Jung Kang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18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는 SPSS PROCESS macro model 6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영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거나 혹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성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밑바탕이 되는 매개요인으로, 간호교육현장에서는 영성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ity,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8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that ha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um for more than one semester.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11th to the 18th of September 2019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WIN 21.0, and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model 6. Spirituality guided social support was found to improve clinical competence by mediating self-efficacy or directly affecting problem-solving ability. In particular, mediation by spirituality importantly improved clinical competence. Our findings suggest that holistic and systematic nursing education methods based on spirituality should be adopted in the nursing education field.

Keywords : Clinical Competence, Problem Solving,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Spirituality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eok-Jung Kang(Semyung Univ.)
email: belief62@semyung.ac.kr

Received July 5, 2021

Accepted September 3, 2021

Revised August 5, 2021

Published September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수행능력은 간호 실무에서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 태도, 판단 등의 역량을 통해 능숙하게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 간호사의 높은 임상수행능력은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2] 반면, 임상수행능력 결여는 대상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며, 나아가서는 간호사의 임상현장 부적응과 이직을 초래하게 된다[3]. 이에 간호교육에서는 국내외 보건 의료 현장에서 안전하고 질적인 전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5].

간호대학생은 이론 및 실습 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과도한 수업 및 과제,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6],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싼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인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애정과 관심 어린 감정적 배려와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 원조이다[7].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8,9].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영성은 인간의 역동적이며 본질적인 측면으로, 인간은 영성을 통해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 및 초월성을 찾고, 자기 자신, 가족, 다른 사람들, 공동체, 사회, 자연,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10]. 바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소진은 임상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11], 영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의미와 의미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해 나가도록 도움으로써 소진 등의 부정적 특성을 감소시켜 주는 내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12].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은

영성이 높았으며[13], 영성과 유사한 개념인 영성지능은 간호대학생이 직면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또한 영성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을 기반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잘 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효능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가 그들의 동기화와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켜[5] 간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문제 해결자가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17].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사가 간호 현장에서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발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호계획을 수립하며 간호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적절한 임상수행능력을 발휘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18].

이처럼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 간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을 토대로 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본 연구[4]와 자기효능감 이론을 토대로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과의 인과관계를 본 연구[5]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직렬다중 매개모형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순차적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한 매개변수가 다른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전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 표본 추출한 2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으로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220명이었다.

대상자의 수는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 크기 .15, 예측인자 4개를 기준으로 G*Power 3.1.9.2 프로그램을 통해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을 산출한 결과 129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20]이 개발한 다차원적사회적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도구를 Park 등[21]이 변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의미 있는 타인의 특별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의미 있는 타인의 특별지지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임상실습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간호학과 교수 지지로 지정하였다[22]. 각 영역별 4문항으로 총 12문항이며, 1점 '항상 그렇지 않다'에서 7점 '항상 그렇다'로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합의 범위는 최저 12~8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3.2 영성

영성은 관계성, 내적 자원, 삶의 의미와 목적 및 초월성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Howden [23]이 개발한 것을 Oh 등[24]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관계성 9문항, 초월성 6문항, 내적자원 9문항, 삶의 의미와 목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8개 문항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로 6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합의 범위는 28~16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Oh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2.3.3 자기효능감

Schwarzer 와 Jerusalem [25]가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도구(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GSE)를 Lee 등[26]이 수정 번안한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도구(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 '전혀 아님', 2점 '거의 아님', 3점 '대체로 그러함', 4점 '매우 그러함'으로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합의 범위는 10~4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Lee [17]가 개발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인식 5문항, 정보수집 5문항, 분석능력 5문항, 확산적 사고 5문항, 의사결정 5문항, 기획력 5문항, 실행과 모험 감수 5

문항, 평가 5문항, 피드백 5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드물게 한다' 1점에서 '매우 자주 한다' 5점으로 총합의 범위는 45~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5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Lee 등[27]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Kim 등[28]이 수정 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간호리더십 12문항, 전문직 발전 5문항, 간호술기 5문항, 의사소통 7문항, 간호과정 5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스스로 질문을 읽고 답하게 하는 자가보고식 설문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5점으로 총합의 범위는 34~1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자료수집 기관은 서울과 지방 소재의 4년제 간호학과 2곳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각 간호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220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되었고,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218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과 PROCESS macro v3.4 model 6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é method를 사용하였다.

셋째,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주요변수의 매개효과는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확인이 가능한 직렬다중 매개모형인 SPSS PROCESS macro v3.4 model 6를 이용하였다[19]. 본 연구는 5,000개의 부트스트래핑 표본을 지정하였고, 간접 효과의 크기와 유의성 검증은 95% 신뢰구간으로 분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한 것으로 간주된다[19].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교 기관 윤리 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MC19QESI0072)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익명보장, 자발적인 참여과정, 불이익과 해악 없음, 철회 가능 등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남학생이 20명(9.2%), 여학생이 198명(90.8%)으로 대부분 여학생이었다. 연령별로는 188명(86.2%)이 20세에서 24세였다. 학년은 3학년이 121명(55.5%)으로 많았고, 4학년이 97명(44.5%)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118명(54.1%)이었고, 평균학점은 3.5점에서 4.0미만이 114명(52.3%)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성은 종교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t=3.40$, $p=.001$). 자기효능감은 성별($t=2.09$, $p=.037$), 학년($t=-2.93$, $p=.004$), 종교($t=2.22$, $p=.02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다. 또한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높았다. 문제해결능력은 학년($t=-2.46$, $p=.015$), 학점($F=5.07$, $p=.00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으며, 사후검정 결과 평균학점이 3.5이상 4.0미만인 학생이 3.5미만인 학생보다 유의하게

Table 1. Differences in Variables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18)

Characteristics		n (%)	Social support		Spirituality		Self 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Clinical competence	
			Mean±SD	t or F (p) Scheffé	Mean±SD	t or F (p) Scheffé	Mean±SD	t or F (p) Scheffé	Mean±SD	t or F (p) Scheffé	Mean±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20 (9.2)	63.10±12.65	-0.09 (.930)	119.50±20.40	-0.35 (.724)	30.95±4.40	2.09 (.037)	166.20±13.28	0.19 (.854)	133.75±18.76	1.17 (.242)
	Female	198 (90.8)	63.36±8.93		120.90±16.56		28.89±4.16		165.57±14.63		129.46±15.24	
Age (year)	20-24	188 (86.2)	63.29±9.02	-0.17 (.867)	121.27±17.10	1.09 (.279)	29.01±4.25	-0.68 (.500)	165.61±14.75	-0.04 (.966)	130.05±14.99	0.47 (.637)
	25≤	30 (13.8)	63.60±11.06		117.67±15.42		29.57±4.03		165.73±12.91		128.60±19.21	
Grade	3rd	121 (55.5)	62.69±9.41	-1.14 (.257)	120.12±17.96	-0.64 (.521)	28.35±4.34	-2.93 (.004)	163.50±14.80	-2.46 (.015)	127.44±14.48	-2.59 (.010)
	4th	97 (44.5)	64.13±9.13		121.60±15.52		30.00±3.89		168.29±13.70		132.87±16.47	
Religion	Yes	118 (54.1)	64.11±9.02	1.34 (.182)	124.27±15.99	3.40 (.001)	29.66±4.29	2.22 (.027)	165.80±15.16	0.19 (.853)	129.83±13.69	-0.02 (.981)
	No	100 (45.9)	62.42±9.57		116.65±17.08		28.40±4.05		165.43±13.72		129.88±17.65	
Grade point average	<3.5 ^a	80 (36.7)	62.09±9.97	1.14 (.322)	117.73±15.59	2.18 (.116)	28.36±4.19	1.93 (.148)	161.60±12.46	5.07 (.007) b>a	128.00±14.96	1.65 (.195)
	3.5-4.0 ^b	114 (52.3)	64.07±9.08		122.83±17.76		29.56±4.29		168.00±15.75		130.18±16.68	
	4.0 ^c ≤	24 (11.0)	64.00±7.75		121.17±15.99		29.21±3.78		167.79±11.81		134.46±11.16	

높았다. 임상수행능력은 4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59, p=.010$).

3.2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는 84점 만점 기준에 63.34 ± 9.30 점이었고, 영성은 168점 만점에 120.78 ± 16.90 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40점 만점에 29.08 ± 4.22 점이었으며, 문제해결능력은 225점 만점에 165.63 ± 14.49 점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은 170점 만점에 129.85 ± 15.60 점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영성($r=.52, p<.001$), 자기효능감($r=.35, p<.001$), 문제해결능력($r=.27, p<.001$), 임상수행능력($r=.17, p=.014$)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영성은 자기효능감($r=.59, p<.001$), 문제해결능력($r=.48, p<.001$), 임상수행능력($r=.2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능력($r=.43, p<.001$), 임상수행능력($r=.2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문제해결능력은 임상수행능력($r=.4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2).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Variables

(N=218)

Variable	1	2	3	4	5
1	1				
2	.52 ($<.001$)	1			
3	.35 ($<.001$)	.59 ($<.001$)	1		
4	.27 ($<.001$)	.48 ($<.001$)	.43 ($<.001$)	1	
5	.17 (.014)	.22 (.001)	.28 ($<.001$)	.47 ($<.001$)	1

Adjusted Gender, Grade, Religion, Grade Point Average

1. Social support, 2. Spirituality, 3. Self efficacy,
4. Problem solving ability, 5. Clinical competence

3.3 주요변수 간의 효과분석

본 연구는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6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Figure 1과 같다.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총효과는 양(+)적으로 유의하였고($B=.25, p<.05$)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의 직접적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7, p=.544$).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Ind5 (B=.13)의 경로와 Ind7 (B=.04)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Ind5는 사회적 지지가 영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거쳐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의미하고, Ind7은 사회적 지지가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을 경유하여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의미한다. Ind5의 경로는 부트스트랩 하한값이 .06, 상한값이 .24로 나타났고, Ind7의 경로는 하한값이 .01, 상한값이 .09으로 두 경로 모두 0이 포함되지 않아 양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Bootstrap Analysis of Multiple Mediation Effects (N=218)

Path	B	SE	LLCI	ULCI
Total effect	.25	.11	.02	.47
Direct effect	.07	.12	-.16	.31
Total indirect effect	.17	.08	.01	.32
Ind1	-.06	.08	-.21	.09
Ind2	.01	.02	-.03	.04
Ind3	.01	.05	-.11	.10
Ind4	.04	.04	-.05	.12
Ind5	.13	.05	.06	.24
Ind6	.01	.01	-.02	.03
Ind7	.04	.02	.01	.09

Adjusted Gender, Grade, Religion, Grade Point Average
LLCI=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Ind1: Social support → Spirituality → Clinical competence, Ind2: Social support → Self efficacy → Clinical competence, Ind3: Social support → Problem solving ability → Clinical competence, Ind4: Social support → Spirituality → Self efficacy → Clinical competence, Ind5: Social support → Spirituality → Problem solving ability → Clinical competence, Ind6: Social support → Self efficacy → Problem solving ability → Clinical competence, Ind7: Social support → Spirituality → Self efficacy → Problem solving ability → Clinical compe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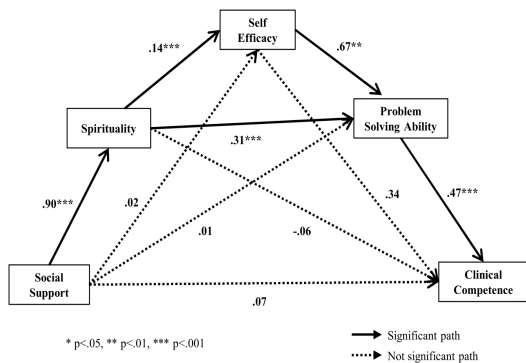


Fig. 1. PROCESS macro model 6 diagram of variables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직렬 다중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재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보면, 영성은 종교가 있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있는 경우 영성이 높았던 선행연구[29]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영성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절대자와의 관계를 맺고, 거룩한 생활과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영성의 수직적 차원의 속성에 포함된다[30]. 이에 종교에 따라 영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ang [3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성별,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는 상반되나,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학년이 높을수록, 평균학점이 3.5이상에서 4.0미만인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능력이 학년과 성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32]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반복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던 선행연구[3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던 것은 4학년이 체계적인 학교의 교과과정을 대부분 이수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과정을 통해 더 많은 성취감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학년의 성취수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임상수행능력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임상수행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Jung [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임상수행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직관 형성과 병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만큼 사회적 지지체계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역량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영성과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간호대학생의 영성은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족, 교사,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영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13]와 높은 영성지능을 가진 간호사는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과[14]와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5]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지지는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초월하고, 자기 자신·가족·다른 사람들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영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영성은 간호대학생 자신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긍정적 초월적 시각을 가지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은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적절한 간호과정을 적용해야 하는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영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는 결과[14]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영성지능과 영성의 측정도구 또는 연구설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영성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간호대학생의 영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임상수행능력에 간접효과를 미친 연구[4]와 영성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 간에 매개 효과가 있다는 연구[15]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Kim 등[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자기효능감 또한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매개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변화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자신의 효능성에 대해 가지는 확신의 강도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여 문제에 대처한다고 하였다[16]. 따라서 영성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인식한 높은 자기효능감은 자신과 대상자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는 연구결과[5]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반복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영성은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에 중요한 매개요인이며,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영성과 관련된 국내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 영성은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은 강화하고 부정적 특성은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영성은 간호현장에서 전인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인 영적 돌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선시 되고 있다[33]. 이러한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중요하다[34]. 따라서 간호교육현장에서 질적으로 높은 전인간호를 위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성찰을 통한 영성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매개요인이며, 특히 영성이 간호목표인 전인적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는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는 편의 표본 추출한 2곳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 보고식 간호대학생용 임상수행능력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수행능력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임상수행능력 도구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영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거나 혹은 직접 문제해결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호교육자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자문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간호대학생 스스로의 성장을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양성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Z. Nabizadeh-Gharghozar, N. M. Alavi, N. M. Ajorpaz,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a hybrid concept analysis", *Nursing Education Today*, Vol.97, pp.104728, Feb. 2021.
DOI: <https://doi.org/10.1016/j.nedt.2020.104728>
- [2] H. S. Kang, Y. Y. Kim, H. S. Lee,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3, pp.3859-398, Mar.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3.389>
- [3] Y. S. Kim, K. Y.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field adaptation in newly graduat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9, No.4, pp.536-543, Sep. 2013.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3.19.4.536>
- [4] S. Y. Jung, "The structural model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6, pp.3333-3352, Dec. 2013.
- [5] M. S. Kim, S. K. Sohn, "Emotional intelligence, problem solving ability, self-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31, No.4, pp.380-388, Aug. 2019.
- [6] S. A. Kim, H. J. Lee, S. H. Lee, E. H. Hong, "Types of stress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2, pp.237-247, Feb. 2020.
DOI: <https://doi.org/10.21184/jeia.2020.2.14.2.237>
- [7] M. Park, W. H. Jun,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hop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1, pp.34-41, Feb.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1.34>
- [8] A. Karaca, N. Yildirim, S. Cangur, F. Acikgoz, D. Akkus,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and coping,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Nurse Education Today*, Vol.76, pp.44-50, May. 2019.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9.01.029>
- [9] L. J. Labrague, D. M. McEnroe-Petitte, M. Al Amri, D. C. Fronda, A. A. Obeidat, "An integrative review on cop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65, No.2, pp.279-291, Jun. 2018.
DOI: <https://doi.org/10.1111/inr.12393>
- [10] C. M. Puchalski, R. Vitillo, S. K. Hull, N. Reller, "Improving the spiritual dimension of whole person care: reach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sensus",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Vol.17, No.6, pp.642-656, May. 2014.
DOI: <https://doi.org/10.1089/jpm.2014.9427>
- [11] J. Gunawan, Y. Aunguroch, M. L. Fisher, C. Marzilli, Y. Liu, "Factors related to the clinical competence of registered nurse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52, No.6, pp.623-633, Nov. 2020.
DOI: <https://doi.org/10.1111/jnu.12594>
- [12] M. S. Chung, "Trends of spiritual research in Korea: analyses of variables and programs used",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37, No.3, pp.385-409, Sep. 2018.
DOI: <https://doi.org/10.22257/kjp.2018.09.37.3.385>
- [13] S. Deb, K. McGirr, J. Sun, "Spirituality in Indian university students and its associations with socioeconomic status, religious backgroun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Religion Health*, Vol.55, No.5, pp.1623-1641, Feb. 2016. DOI: <https://doi.org/10.1007/s10943-016-0207-x>
- [14] H. Karimi-Moonaghi, A. Gazrani, S. Vaghee, H. Gholami, A. R. Salehmoghaddam, "Relation between spiritual intelligence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es in Iran", *Iranian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Research*, Vol.20, No.6, pp.665-669, Nov. 2015. DOI: <https://doi.org/10.4103/1735-9066.170002>
- [15] W. H. Jun, G. Lee, "The mediating role of spirituality on professional values and self-efficacy: a study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72, No.12, pp.3060-3067, Jul. 2016.
DOI: <https://doi.org/10.1111/jan.13069>
- [16] E. Alqurashi, "Self-efficacy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a literature review", *Contemporary Issues in Education Research*, Vol.9, No.1, pp.45-52, Jan. 2016.
DOI: <https://doi.org/10.19030/cier.v9i1.9549>
- [17] S. J.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Research Repor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 pp.51-141.
- [18] S. Y. Yang,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6, pp.370-378, Jun.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6.370>
- [19]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 approach, H. K. Lee, translator, p.545, Guilford, 2013, pp.128-137.
- [20]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G. K. Farley,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2, No.1, pp.30-41, Jun. 2010.
DOI: https://doi.org/10.1207/s15327752ipa5201_2
- [21] H. Park, T. Nguyen, H. Park, "Validation of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middle-aged Korean women with diabete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Vol.22, No.3, pp.202-213, Aug. 2012.
DOI: <https://doi.org/10.1080/02185385.2012.691719>
- [22] S. Y. Kim, Y. S. Shin,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9, pp.234-242, Sep.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9.234>
- [23] J. W. Howden,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 Ph.D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Texas, USA, pp.1-310, 1992.
- [24] P. J. Oh, H. S. Chun, W. S. So, "Spiritual assessment scale: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Asian Oncology Nursing*, Vol.1, No.2, pp.168-179, Dec. 2001.
- [25] M. Jerusalem, R. Schwarzer, Self-efficacy as a resource factor in stress appraisal processes.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p.405, Hemisphere, 1992, pp.195-213.
- [26] Y. M. Lee, R. Schwarzer, M. Jerusalem,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Internet], Ralf Schwarzer, 1994, Available from: <http://userpage.fu-berlin.de/~health/korean.htm> (accessed 2018 September 20)
- [27] W. H. Lee, C.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onsei Nursing*, Vol.13, pp.17-29, 1990.
- [28] B. Y. Kim, M. J. Chae, Y. O. Choi,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linical competency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9, No.2, pp.220-230, Jun. 2018.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8.29.2.220>
- [29] S. S. Hong, J. A. Hong, W. H. Jun, "Spirituality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6, pp.361-369, Jun.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6.361>
- [30] I. S. Ko, S. Y. Choi, J. S. Kim,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7, No.2, pp.242-256, Apr. 2017.
DOI: <https://doi.org/10.4040/jkan.2017.47.2.242>
- [31] S. Y. Yang,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6, pp.370-378, Jun.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6.370>
- [32] H. S. Park, J. Y. Han,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0, No.4, pp.438-448, Nov. 2013.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3.20.4.438>
- [33] L. Ross, T. Giske, R. van Leeuwen, D. Baldacchino, W. Mcsherry, A. Naraanasamy, "Factors contributing to student nurses'/midwives' perceived competency in spiritual care", *Nurse Education Today*, Vol.36, pp.445-451, Jan. 2016.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5.10.005>
- [34] M. R. Cobb, C. M. Puchalski, B. Rumbold,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p.520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276-277.

강 석 정(Seok-Jung Kang)

[정회원]



- 201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영성, 암환자